

6.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 엄태호 목사

본문	사도행전 10:9-16	주제/사건	고넬료와 베드로 / 전통
문제제기	<p>■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달걀을 깨뜨려서 세운 콜롬버스2. 하나님께서 달걀을 타원형으로 만든 이유를 묵상하기(하나님은 항상 옳다)<ol style="list-style-type: none">1) 달걀이 울퉁불퉁 각져 있다면 암탉이 알을 낳을 때 고통스러울 겁니다.2) 타원형이기 때문에 멀리 안 굴러갑니다. 굴러가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설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생각의 흐름을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경적 세계관(하나님은 옳다) vs 변증법적 세계관(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 헤브라이즘 vs 헬레니즘- 절대주의 vs 상대주의2.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행 10:15)<ol style="list-style-type: none">1) 보자기애에 담겨 있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먹으라 명령하시는 하나님2) 율법에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한 것은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하는 베드로3.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ol style="list-style-type: none">1)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 11:19)2) 이사야 55:8-9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4. 적용<ol style="list-style-type: none">1)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창조적 세계관으로 살아가기)<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님의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라.- 맹장을 왜 만드셨을까? 눈썹을 만드신 이유?- 불행인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참 복이더라.2) 납득되지 않더라도 일단 순종해 보아라.<ul style="list-style-type: none">- 싫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면 생기게 되는 일들-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다윗		

6.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1) 1안

■ 스킷드라마

- 낮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 앞에 보자기가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 안에 족발을 먹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자 베드로는 “못 먹습니다. 이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겁니다”라고 말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어찌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먹어라” 말씀하신다.

■ 엄태호 목사 등장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건 정말 모든 걸 잃는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지도자인데 만일 그가 개 돼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의 지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식사 자리에 있었던 것 만으로도 베드로를 정죄하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하는데...

이건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이 참 딱한 인물입니다.

앞에 블레셋 군대가 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강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군대의 숫자도 배가 넘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군대가 믿는 건 하나님 하나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력의 열세가 있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를 위해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 분열의 조짐이 나타납니다. 불안해 떨다가 도망치는 병사들이 생깁니다. 저마다 절망의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손 한번 쓰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면 어쩔 수 없지요.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병사들 위해서 하나님 위해 제사를 드린 겁니다.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예배 인도한 건데... 어떻게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생존의 문제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다고 먹으라고 하지만 초대 교회 다른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율법을 어긴거라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납득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아요. 납득이 안 되는데 무조건 해라. 이건 “라떼는 말이야” 랑 똑같은 겁니다. 기성 세대들이 설명도 잘 해 주지 않고 무조건 하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2) 2안 : 만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에도 당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추가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뿐만 아니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세요.

그로 인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지 않았더라도 당장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을 여전히 부정한 개 돼지 취급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바울을 준비시키셨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이루어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분열되어 싸웠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헛된 곳에 에너지를 많이 허비하게 되었을 것이고, 선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친밀함의 장소가 없었더라면. . .

사도행전 10장 9-16절.

9.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 시더라
10.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1.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키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12.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14.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15.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끝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결단의 순간에 선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オス왈드 챔버스의 전기 [순종의 길]을 읽으며 목회자로서 도전을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를 아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회 전에 반드시 어디론가 조용히 사라져서 주님과의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어느 때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또 어느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챔버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계속해서 ‘결단의 순간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너무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보다 먼저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접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청을 받아들였고, 당시 로마황제에게 헌정했던 아름다운 도시 가이사랴에 베드로가 방문한 것이죠. 신분적으로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과 융바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 베드로가 만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로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일어났을 일이 무엇인가 보다, 베드로와 고넬로가 만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고넬로의 입장에서 베드로에 사람을 보내 그를 초청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당시 사회적 통념, 문화적 이질성, 그리고 종교적 차이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5-6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융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고넬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

추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고넬료이 믿음이 귀하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고넬료의 초청에 베드로가 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고넬료와 동일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8-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청함을 허락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그 환상 때문이죠. 비록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니 못 만날 이유가 없고, 그 가정에 찾아가 말씀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사도바울의 회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주제는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핵심 인물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인공이 바뀌는 것 역시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일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즉흥적이거나, 어떤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 ‘결단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중요한 순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알려진 인물이라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그 계획을 위해 캐스팅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캐스팅이 부적절 하다면 단지 인물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혹시 심은경이라는 여배우를 아시나요?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로 많이 알려졌고, 2014년 스무 살의 나이로 백상예술대상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수상식

장에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린 제가 받아서”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그 때와 동일한 일이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1978년 일본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한국 배우가 최우수연기상을 받은 것입니다. 수상식장에서 그녀는 누을 껌뻑이며 마이크 앞에서 울음을 삼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아무런 준비를 못 했다. 죄송하다”고 말입니다.

그녀가 일본지눌을 도전했던 2017년은 한국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던 때였습니다. 일본어를 배우며 시작해야 하는 도전이 무모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에 의존하지 않고 갓 데뷔한 신인처럼 한 계단씩 밟았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인터뷰에서 했던 한 마디 였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의 핵심은 ‘커리어’ 보다는 ‘소양’에 있다고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지만, 그 결과에 다다른 내면, 혹은 배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기독교 선교사에서 한 획을 긋는 일이었고, 성경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신앙적 결단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결단의 순간’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나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적어도 그 결단에 순간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있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 .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안식]이라는 책 첫머리에 저자의 딸이 아버지를 생각하며 적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

안식일은 단지 토요일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한 주간의 나머지 옛새 동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안식일 경험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신다. 한 주의 나머지 옛새는 안식일로 나아가는 순례 여행이다.

위의 글을 오늘의 본문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의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삶에 계속된 일의 ‘한 순간’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그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 ‘그 순간’이 구별된 시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9절에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2-3절 말씀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9.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 시더라**

2.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 하루는 **제 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던 시간은 오늘날로 하면 ‘정오’쯤 되는 시간이요.

고넬료가 기도했던 제 구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이 시간은 베드로가 정해 놓은 규칙, 혹은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른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와 있는 성령강림 후 첫 번째 기적의 시작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우리가 몇 주 전 나누었던 스데반의 순교를 기억하시죠?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 수 없게 되었고, 모든 이들이 흩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정해진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와 신앙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니, 베드로는 자신의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겠죠.

게다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개인적인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주 흥미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달하시는 방식입니다. 10절 말씀.

10.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딱 점심시간에 베드로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가지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식이 무엇이든, 배가 고프지 않으면 주목하지 않았을 텐데, 배가 고프니 무엇을 먹느냐가 아주 민감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다시 고넬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집안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도록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었고,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하루는 오후 세 시쯤 그가 환상을 보았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던 시간과 장소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던 때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아주 친밀하게 다가 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정해진 시간, 친밀함의 순간이 없었더라면 그에게 '결단의 순간'조차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결정의 순간'들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인해 찾아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축복이고,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고민했을까요?

이제 베드로가 고민 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을 보겠습니다.

- 1/.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 2/.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 3/.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 4/.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 5/.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 뜬금없이 이런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 분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요, 그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죽인 자를 살리시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는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데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놀라운 말씀을 들어도 '내 상식'과 '내 가치관' '내 이익'과 관계된 것에서 사람들이 참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황홀한 중에 펼쳐진 일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운 것입니다.

그 속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허기가 진 상태인데 말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하죠. 세 번 씩이나 말입니다.

요즘 저에게 커다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얹지로라도 좋은 신앙의 고전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C. 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음 책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시 보게 된 책입니다. 이전에 별로 느낌이 없었던 책인데, 정독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와 닳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이 순전하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저자의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른바 ‘나의 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기독교, 즉 제가 태어나기 오래 전부터 저의 호오(好惡)와 상관없이 이미 그려했으며 지금도 그러한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베드로의 상황과도 일치하는 것인데, 우리들의 고민이 늘 그렇습니다. 순전한 우리 신앙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척점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기 선교 역사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화진에 묻혀 있는 분들 가운데 새뮤얼 무어(Samuel F. Moore) 선교사가 있습니다. 1892년 32세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은 무어 선교사는, 현재의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인 곤당골에 새문안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 장로교회인 곤당골교회를 세웠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무엇보다 조선사람의 교육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열었던 예수학당 학생들 중에 ‘봉주’라는 백정 박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백정은 인간취급을 받지 못하던 계층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어선교사는 봉주의 아버지 백정 박씨가 장질부사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와 왕진을 가서 병을 고쳐주게 되죠.

이를 계기로 백정 박씨는 무어선교사가 개척한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열심히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그를 환영했을 뿐 아니라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곤당골교회의 양반성도들이 백정과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선교사에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백정을 교회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자신들은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무어 선교사는 그들의 항의를 거절했고 양반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대신 양반과 백정이 앉는 자리를 구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무어 선교사는 교회에서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자, 양반들을 교회를 떠나 홍문동에 따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참 흥미롭죠?

교회의 개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이루어지니 말입니다.

교회가 텅 비게 되자 난처해진 박성춘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백정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백정들이 모인 곤당골교회는 당시에 '백정 교회'라 불리게 됩니다.

그 후에 갈라져 나갔던 흥문동교회이 양반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 두 교회를 통합해 만든 교회가 바로 현재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당시 교인 100명 중 백정이 30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승동교회에서 박성춘이 장로가 되고, 그 후에 왕손이었던 이재형이라는 사람도 장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신분사회에서 백정과 왕족이 한 교회에서 같은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만일, 무어 선교사가 교회를 떠나가는 양반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에 기초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당시 승동교회에서는 박성춘을 포함한 백정들이 무어 선교사의 후원과 지도하에 '백정 해방'을 위한 탄원서를 조선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게 되었고, 백정도 국민의 자격을 얻어 호적에 오르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일이 130년 전 조선에서 가히 혁명적이었던 일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마르타 헌틀리(Martha Huntley)라는 분이 나중에 자신의 저서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A History of the Protestant Mission in Korea)>에서 무어 선교사의 백정 해방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turning the world upside down)”이라고 부르면서,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 선언을 얻은 미국 흑인들의 기쁨은 한국 백정들의 기쁨보다 결코 더 크지 않았다.”라고까지 표현한 정도였습니다.

무어선교사는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한지 14년 만인 1906년 장티부스에 걸려 4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 양화진에 묻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백정 박성춘의 아들 '봉주'가 세브란스 의대의 전신인 제중원의학과의 1기 졸업생이 되었고 10년 후 모교에서 설립자인 애비슨 선교사와 함께 교수를 제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박서양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으로 인해 이 땅 조선에 일어났던 변화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처럼 박성춘과 무어 선교사의 만남이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성경의 역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생생하게 일어나야 하는 사건들입니다.

[mere christianity]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제자들,’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앤디옥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행 11:26) 이 말이 그 가르침의 유익을 얻을 만큼 얻은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 정교하고 정신적이며 내면적인 의미에서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제자들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영에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 쓰였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도, 도덕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보편적인 이해가 가능한 방식으로 단어를 사용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였으면서도 그에 합당치 않게 사는 사람이 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하기 보다는 ‘그는 나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지만 잘못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 속에 무언가를 가두려는 경향이 있다면, 하나님은 가두어 놓은 우리들의 생각을 자꾸 넘어서라고 격려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해 부활절 설교에서 저는 [선 밖에 선 예수]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에 서 있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선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지만, 선 밖에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신앙과 사역의 지경을 훨씬 더 넓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들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라!’라고 말이죠.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욥바’에 가둬 놓았을 복음의 지경이 ‘가이사랴’로 넓혀진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지역적 한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헬라문화의 중심인 로마의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인 이달리야 군대의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음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둘의 만남이 가져온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행전 10장 34-5절에 보면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장 45-6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을이려라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이들이 생각했던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 품으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세요.

이들의 생각과 삶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졌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했을 이들의 신앙이 성장한 것이죠.

순종이 주는 유익이요, 우리의 삶이 결단의 순간에 서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제가 처음 만나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선교를 시작했던 이유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선교를 가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데, 그 돈을 그냥 선교지에 보내주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돈 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